

#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연동 방안

장미영(전주대)

##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비판적 독해      |
| 2.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 6. 다문화 지도사의 활용 |
| 3. 다문화교육을 위한 한국어 독해자료    | 7. 맺음말         |
| 4.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연계      |                |

## 1. 머리말

본 연구는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연동시켜 진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대학생의 사회 적응은 물론이고 비다문화가정 대학생으로부터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한국어교육 대상자들이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춰 글로벌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다문화가정의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은 대부분 거주국인 한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습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함과 동시에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중심의 문화적 정체성을 내면화하도록 교육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출신국 문화를 의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나라의 문화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교육 방향과 실천은 두 문화 이상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다문화교육이라 할 수 있지만, 부모-자녀 중심의 핵가족 단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소극적인 것이자 다문화가정으로만 한정된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교통과 통신이 원활해진 세계는 바야흐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인재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해마다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해외 인턴십 또는 대학생 해외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하여 이민자, 유학생 등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한국 사회가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지다보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각기 다른 출신 국가 사람들끼리 문화가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여 융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화 간 불통이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서까지 언어 장벽보다 더 큰 불편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외래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보다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 문화로의 동화를 저변에 깔고 있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외국인들의 현실적인 이해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은 가족, 민족, 국가 개념을 의식하는 소속의 논리에서 빠른 속도의 변화와 다양한 문화 접촉 기회의 확대 및 점증하는 복합성 개념에 의거한 도구의 논리를 수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즉 오늘날의 다변화된 문화적 변동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어 학습자로 한정하되, 이들이 다문화적인 현실적 요구에 좀 더 잘 부응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의 실용적 기능을 앞세우고자 한다.

문화는 정태적이거나 구획이 뚜렷한 폐쇄적인 개념이 아니다. 문화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적, 이념적 요인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동적이고 개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는 다양하게 해석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해석을 뒤엎는 재해석도 가능하다. 다른 문화, 이질적인 문화의 만남은 상호 충돌과 고통을 낳는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이 다른 측면으로는 상호영향과 혼성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자신이 속한 문화와 다른 문화를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하여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도 수용적인 다문화적 감수성의 획득을 한국어 독해교육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 2.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국내의 한국어교육은 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은 초급·중급·고급의 3가지 시험이 있고, 1급부터 6급까지 여섯 단계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에 발맞추어 각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교재도 1급부터 6급까지의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고 한국어교육도 그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 단계별 시험 내용은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의 4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바, 한국어교육도 그에 준한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인 초급 중 1급은 자기소개와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는 800개의 기초 어휘와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이다. 2급은 우체국이나 은행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능력으로, 1,500개에서 2,000개 안팎의 단어를 사용하는 수준이다. 중급인 3, 4급은 평이한 신문 기사の内容을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 이슈나 추상적 소재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정도인데,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최고 단계인 고급 중 6급은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적절하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단계다.)<sup>1)</sup>

국내·외에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기관, 민간기관 할 것 없이 한국어교육계의 요구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학습 목적에 맞고 각 지역, 각 언어권에 맞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은 일반적으로 위에 제시된 구성과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교재 구성 방식, 단원 구성 방식 등 교재의 체제도 대동소이하다. 주제, 상황, 기능, 문법, 어휘, 관용 표현, 상투 표현, 유형 연습, 발음, 과제, 활동에 이르기까지 교육 내용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주입하거나 한국 문화를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동화주의적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sup>

이와 같이 국내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범용 교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범용 교재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모국어와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적 상황 중심으로 개발된 교재이다.<sup>3)</sup> 이로 말미암아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에게 한국적 정황을 일방향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치중하고 있기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법 교육의 한 예를 들면, ‘-은/는’, ‘-이/가’, ‘-을/를’ 등 격조사를 교육할 때 격이 어순에 의해 정해지는 언어권의 학생과 격조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권의 학생은 그 이해도가 현격하게 다르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한국어교육 담당자들은 학생들이 한국인 교재 집필자가 의도한 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학습자의 언어권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토로하게 된다.<sup>4)</sup>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의 술 문화나 제사 문화, 결혼·장례 문화, 명절 문화, 음식 문화 등은 각 문화권별로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계적 이해를 유도하지 않고 곧바로 상황제시로 들어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요한다면 한국어교육은 역효과의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

1) <주간조선>, 2008.5.12.

2) 이병규 외,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2005.

3) 김성주, “범용 한국어 교재와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학』 제2권 2호, 2005, 1~15면.

4) 김성주, 앞의 논문.

이와 같이 현행 한국어교육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하는 데에 소홀하다. 아울러 학습자가 속한 언어권과 문화권의 특징적인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한국어교육은 ‘한국’이라는 지역색을 벗어나 세계의 공용어 중 하나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07년 9월 27일, 제 43차 총회 본회의에서 18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국제공개어로 결정했다. 한국어가 국제기구에서 공식 언어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국제공개어는 PCT 출원 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출원인들이 자국어로 PCT를 출원 하더라도 통상 18개월 이내에 출원된 특허기술 내용을 WIPO가 인정하는 국제공용어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PCT 공개어로 한국어가 공식 채택된 것은 UN 공용어를 제외하고는 독일어·일본어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다. 이러한 성과는 마치 한국어가 UN 공용어로 채택되는 것과 유사한 효력을 지니게 되어 국가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어의 국제공개어 채택으로 말미암아 국내 출원인의 PCT 출원이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지식재산권 분야를 선도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특허를 더욱 강력히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력의 WIPO 진출 기반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한국어 번역·전산 업무 등 한국어를 국제공개어로 사용하는 업무에서 한국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sup>5)</sup>

한편 중국 국제전문일간지 <환구시보>는 최근 UN이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 실제 사용 빈도를 평가기준으로 선정한 ‘세계 10대 실용 언어’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어는 7위로 평가되었다고 보도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용 언어는 영어가 1위, 그 다음으로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아라비아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순으로 나타났다. UN이 선정한 ‘세계 10대 언어’ 순위는 실제 언어 사용 상황, 적용 범위, 국제 인지도, 정치·경제·문화 교류 등의 사용률 등이 평가 기준으로 적용된 결과였다고 한다.<sup>6)</sup>

---

5) 신선미, “지식재산강국, 이제는 세계로(상): 한국어, PCT국제공개어 채택”, <전자신문>, 2007.11.7.

게다가 나라 안팎에서는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도전하는 응시자들이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어능력 자격증은 ‘코리아 드림(korean dream)’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과제처럼 인식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2007년부터 상·하 반기로 나누어 한 해에 두 차례나 실시되고 있다. 2008년 4월 20일 국내외 18개국 62개 지역에서 치러진 제 13회 한국어능력시험에는 모두 7만 3,955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처음 1997년 4개국 14개 지역에서 2,692명이 시험을 치른 것과 비교하면 12년 만에 응시자가 100배나 늘어난 셈이다.<sup>7)</sup> 2013년 1월 20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제 29회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국내 18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시험에 1만 8,702명이 지원해 누적 지원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었다.<sup>8)</sup>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을 거치면서 한국은 점차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한국어 또한 전도가 밝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어는 1997년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인 SAT2에 정식 시험과목으로 채택되는데 이어 2002년부터 일본 대입시험에도 시험과

- 6) 한성훈, “유엔 ‘세계 10대 실용 언어’ 한국어 7위, 중국어 9위”, <온바오뉴스>, 2008.3.25.
- 7) “나라 안팎에서 한국어시험 열풍: 중국서도 몽골서도 한국서도...Toefl 영어테스트 대신 Topik 한국어 능력시험”, <주간조선>, 2008.5.12.  
 “나라별 응시자를 보면 중국(6만 1,379명)이 단연 앞선다. 미국(1,621명), 일본(1,411명), 우즈베키스탄(1,007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응시한 사람은 6,242명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여성이 대다수였다.  
 베이징과 상하이, 다롄 등 20여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험이 시행된 중국에서는 시험을 앞두고 ‘조선족의 대이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조선족들이 다수 거주하는 연변이나 하얼빈 지역의 고사장에서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한 수험생들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으로 대규모 원정 시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응시생을 위한 전용 열차와 버스가 등장할 정도였다.(...중략...) 최근에는 몽골인의 응시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솔롱고스(무지개)의 나라’ 한국 유학에 대한 인기가 치솟으면서 학생들의 응시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각급 학교에서는 한국어가 러시아어를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제2외국어로 떠올랐다. 사회주의 체제였던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러시아어를 선택하던 학생들이 한국어로 속속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200명 수준이던 응시자는 2005년 486명으로 늘었고, 2006년에는 584명, 2007년에는 925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8년 4월 시험의 응시자는 582명, 방문취업제를 위한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이 주류인 중국과는 달리 몽골의 응시자는 전원 유학에 필요한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을 선택한 점이 이채롭다.”
- 8) <경향신문>, 2013년 1월 20일자.

목으로 포함되어 입시수요를 중심으로 한 예측 가능한 실수요까지 확실해졌다. 여기에 1990년부터 대만, 중국, 일본,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한류열풍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와 같이 이제 한국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강국으로 진입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동시에 우리의 5천년에 걸친 역사와 문화를 전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해외에 거주하는 6백만 교포와 함께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본교 또한 한국어 세계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한국어교육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국어교육에 다문화교육을 연계시키려는 본교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전세계에 걸쳐있는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3. 다문화교육을 위한 한국어 독해자료

다문화교육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반편견교육, 다민족교육, 국제이해교육, 세계이해교육 등으로 불리고 있다.<sup>9)</sup> 반편견교육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친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오해를 극소화하는 교육으로서,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편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 기르기 등이 포함된다.<sup>10)</sup> 이에 비해 다민족교육은 1960년대 미국에서, 소수민족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시작된 용어이다. 다민족교육은 다양한 종족이나 민족 등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배우는 민족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1)</sup> 나아가 국제이해교육 또는 세계이해교육이란 모든 인간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상술했자면 국제이해교육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와 다른 생활습관 등을 바르게 이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와 평등의 가치 위에서

9) 교육부, “유아를 위한 세계이해교육자료”, 1999.

10) 신순식 외,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1998, 16면.

1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997.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세계를 일구어내는 세계시민의식 및 그러한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sup>12)</sup>

가장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미국사회에서는 다문화교육을 ‘민주주의의 신념과 가치에 기초를 두고, 상호의존성이 높은 세계,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안에서 문화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sup>13)</sup>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가치는 ①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 ②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③ 세계공동체에 대한 책임, ④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 네 가지로 정리된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가치는 민주주의 이론과 아메리칸 인디언의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다문화교육에 강력한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sup>14)</sup>

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을 위해 참조점이 될, 미국의 다문화교육은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① 평등지향 운동 혹은 평등교수법, ② 교육과정 개혁 혹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교육과정 재검토 ③ 다문화적 역량 혹은 문화 간 상호작용의 기초로서 자신의 문화적 관점뿐만 아니라 타인의 문화적 관점도 이해하게 되는 관점 ④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가르침 혹은 모든 유형의 차별과 편견, 특히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계급차별주의에 대한 저항<sup>15)</sup> 등이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은 주로 한 사회 안의 민족 집단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핵문제, 생태계의 위기, 테러리즘, 인권 문제, 천연자원의 고갈과 같은 전지구적 차원의 현안들이 등장하면서 국가 간의 연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써 다문화교육의 범위는 전 지구적인 관점을 포함할 수 있을 만큼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sup>16)</sup>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유아나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반편견교육과

12) 김의영 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배영출판사, 2009.

13) Christine I. Bennett 지, 김옥순 외 역,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23면.

14) Christine I. Bennett, 앞의 책, 34~35면.

15) Christine I. Bennett, 앞의 책, 23면.

16) Christine I. Bennett, 앞의 책, 같은 곳.

다민족교육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즉 정의의 원칙과 인간 평등에 기초를 두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이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학에서는 반편견교육이나 다민족교육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또는 세계이해교육을 위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교육에 특히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 태어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전 지구적으로 상호 의존되어 있는 문제들에 거의 매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평화, 식량, 삶의 질, 인플레이션, 자원 부족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조직화된 구조 속에서 그러한 문제에 깊숙하게 관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수혜자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sup>17)</sup>

현재 인류는 오존층 파괴, 환경오염, 빈곤, 인구과잉, 핵무기, 가뭄과 기근, 물 부족, AIDS 확산 등 전지구적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인류 전반에 드리운 위협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화된 무역과 경제발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의식을 가진 전 지구적 협력이 요구 된다.<sup>18)</sup> 이러한 인류의 상호의존성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인종의 다양성이 마땅히 인정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한국어 독해교육은 먼저 읽어야 할 텍스트와 나중에 읽어야 할 텍스트를 선별하고, 더 나아가 읽을 만한 텍스트와 읽어야 할 텍스트를 구분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교육에서는 누군가의 구속을 벗어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방임형 독해 자료 대신 전문적이고 체계가 잡힌 단계화 된 독해 자료의 바탕 위에서 약간의 통제가 전제되는 독해교육이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에서 특히 독해 자료의 단계화가 중요한 것은 우연에 내맡긴 자유로운 독서가 편견과 문화 차별 등 다문화교육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경험을 통해 다문화주의에 대해 잠재적인 거부감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의 실제 사례로는 2004년 '올해의 여성' 사회(인권)상을 수상한

17) R. Muller, "The Need for Global Education" (from a speech presented by World Federalism of Canada, available from Sally Curry, 25 Dundana Avenue, Dundas Ontario, Canada L9H 4E5.), Christine I. Bennett, 앞의 책, 43면에서 재인용.

18) Christine I. Bennett, 앞의 책, 42면.

세계적인 슈퍼모델 와리스 디리(Waris Dirie)의 『사막의 꽃(Desert Flower)』이나 2007년 아마존닷컴 종합 베스트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할레드 호세이니(Khaled Hosseini)의 『천 개의 찬란한 태양(A Thousand Splendid Suns)』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사막의 꽃(Desert Flower)』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흑인 소녀가 런던의 밀바닥 가정부 생활을 거쳐 패션계의 검은 신데렐라로 화려한 무대 위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수기이다. 이 수기의 가치는 어떠한 극한 고통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데에 있다.<sup>19)</sup> 하지만 이 작품을 다문화적 관점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 독자는 그녀가 어린 시절에 당했던 강제적인 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 끔찍할 정도로 공포스럽고 저급하다는 편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천 개의 찬란한 태양(A Thousand Splendid Suns)』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전란 속에 남겨진 두 여자, 마리아와 라일라가 한 남자의 아내들로 만나 서로 연적이 되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태에서도 여성끼리의 연대를 만들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피워냈다는 휴머니즘의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도 다문화적 관점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읽게 되면 아프가니스탄의 가난과, 남녀 차별의식, 탈레반 정권의 폭압<sup>20)</sup> 등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되어 아프가니스탄 문화에 대해 존경은커녕 존중하고 싶은 태도마저도 사라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교육의 교육적 효과가 뜻한 바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독자중심의 마구잡이 내지 무정부적 독해 자료를 지양(止揚)하고 다문화교육의 핵심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한 신중한 독해 자료의 선택과 그에 대한 체계화 내지 단계화된 독해 교육이 요청된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독해교육 자료는 반편견교육, 다민족교육, 세계이해교육을 위한 독해 자료로 우선적인 선별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문화교육은 그간 단일 민족을 표방했던 교육 방향을 바꾸는데 치중되어 있었다.

19) Waris Dirie 저, 이다희 역, 『Desert Flower 사막의 꽃』, 샘앤섬, 2010.

20) Khaled Hosseini, 저, 왕은철 역, 『A Thousand Splendid Suns 천 개의 찬란한 태양』, 현대문학, 2010.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교육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간의 다문화교육은 의도한 바처럼 일관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다문화 독해 교육은 다문화교육 초기에 발생했던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10년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총 30,040명으로, 2009년에 비해서 21.4% 증가한 숫자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국적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한국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재학율이 높아졌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1,748명으로 2009년에 비해 3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칠 외국인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도 하고 한국 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나 활동가를 키워내기도 하는 상위의 고등교육 기관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이러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다문화 독해교육 자료는 장르별, 언어권별, 문화별, 테마별 구분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에서는 특히 체계적인 독해 자료가 요구되므로 다문화를 소재로 했다 해서 이러한 독해 자료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다문화 독해교육의 의의를 반감시킨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 나라의 건국 신화, 전래 동화, 역사적 인물이야기 등의 과거 지향 자료로부터 미래의 선진적인 다문화사회 지향의 최신 자료로 나아간다던지 아니면 각국의 신화나 설화 등을 테마별로 묶어 문화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한다던지 하여 교육의 목적이 분명한 독해 자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증가하고 자녀들에게도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충족시켜 주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출신국 언어로 된 도서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들을 한국어 독해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출신국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이주민이나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다문화교육에 보다 유의미한 독해 자료로 재편성해야 할 것이다.

#### 4.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연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어 독해교육에서, 우리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외국어교육의 기준으로 제시한 5C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C란 의사전달(Communication), 문화터득(Cultures), 다른 학과목과의 연계(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다문화사회에의 참여(Communities) 등이다.<sup>21)</sup> 5C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의 외국어교육은 단순히 의사소통에만 국한되는 소극적인 목적 대신 그 언어를 통한 사회적 접근과 삶의 통합까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국가로서의 야심을 엿보게 해준다.<sup>22)</sup>

한국어 독해교육도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학습자를 상정하는 다문화적 관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적 관점은 하나의 문화권만을 상정하고 그 문화적 가치만을 내세우는 단일 문화주의나 동화주의에 반대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의 이면에는 이성과 합리성의 인식 하에 절대적 가치를 배격하며 지배 문화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소수 민족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어교육에 다문화교육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교과과정은 교육 목표, 교과내용, 교수방법, 교수매체의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 목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되,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어만을 습득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한국어를 통해 다문화를 고려하는 상황적 결정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사회참여기술을 익히며 정치적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국가별, 민족별로 따로 따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호 배타적 정체성을 지양하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내용면에서는 내용의 주제를 한국적 정황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과 함께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성, 언어, 사회적 계급, 종교, 성적 성향,

21) 손호민, “미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 6집, 1999, 62~82면.

22) 김대행,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거리”,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112집, 2003, 1~19면.

신체적 능력, 장애, 다양한 정치적 신념, 개념 등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교과 내용은 무엇보다도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의 존중, 세계사회에 대한 책임감, 지구환경에 대한 경외감 등을 가질 수 있는 인류보편적인 내용과 함께 문화권간에 서로 공유되는 문화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수방법면에서는 일인교사제도를 지양하고 다문화적 학습자와 함께 하는 팀티칭, 멘토링, '제3의 교육공간(The Third Pedagogy)<sup>23)</sup>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의 경우처럼 놀이, 게임, 노래, 그림 등을 활용한 전신반응(Total Physical Respond) 교수방법 또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외국어 교수법에 사용되었던 침묵식 교수법(The Silent Way), 집단언어 교수법(Community Language Learning), 암시교수법(Suggestopedia), 자연교수법(The Natural Approach), 청각구두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의사소통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Learning) 등을 총망라하여 한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실 현장 운영 기법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즐거운 한국어수업을 위한 교실활동 100』, '태권도로 배우는 한국어', 등과 같이 교실 활동 자체가 하나의 상품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매체 또한 현행 평면적인 도서 대신 입체적인 도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언어교육에서는 학습 만화, 학습 애니메이션, 영상 시, 영상 수필, 영상 소설, 디지털텍스트, TV 한국어방송 등 눈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거나 눈과 귀를 사용하는 시청각을 동원하여 언어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가 보다 실용적이다. 한국의 시나 소설을 문자 텍스트로만 교수할 때는 학습자의 문화적 스키마가 달라 교육의 효과가 현저하게 낮아진다. 반면 문자 텍스트와

23) 제 3의 교육공간이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이항대립적 공간 배분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피교육자가 자신이 교육받은 한국문화와 비교될만한 자신의 모국문화를 한국어 교육자와 동료 피교육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문화간의 차이를 피부에 와 닿게 실감적으로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 교육자는 한국식 식사예절을 가르치고 난 후 피교육자들에게 학습해보게 한 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3의 교육공간에서 각자 자신의 몸에 밴 모국의 식사예절을 선보이도록 함으로써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보다 섬세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 동영상과 음향을 동시에 사용할 때는 이해도가 무척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연계한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가 보다 쉽고 보다 빠르게 한국어를 습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특수한 문화권 출신의 학습자가 한국어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개별자로서의 한 인간이 어떤 문화권에서 삶을 영위하든 적응력을 높이고 나아가 선도적인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 5. 비판적 독해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 다양한 역사적 관점의 이해, 둘째, 문화적 의식 함양, 셋째, 간문화적 역량 개발, 넷째, 모든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투쟁하기, 다섯째, 지구의 현 상태와 전 세계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 증진, 여섯째, 사회적 행동 기술 개발 등이다.<sup>24)</sup> 이상 여섯 가지로 정리된 다문화교육과정의 목적들은 개별적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되어 있어 각각의 목적들이 서로의 발달과 함께 연동되어야만 성취가 가능하다.

우선 다문화교육에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 문화를 해석하는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관이나 태도 등 다문화적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적 감수성이란 일차적으로 자신의 세계관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즉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 집단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자신의 관점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각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각은 인간사회에 다양한 사고와 행동 방

---

24) Christine I. Bennett, 앞의 책, 62~65면.

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나라나 민족 집단에서 어떻게 이해될지에 대해서 숙고해보는 간문화적 역량을 키우게 된다.

간문화적 역량이란 자신과 다른 표상적 의사소통(언어, 기호, 몸짓)과 무의식적인 신호들(신체 언어), 문화적 관습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접했을 때는 대개 자신의 문화적 조건에 기초해서 상대방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문화적 조건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가정들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간문화적 역량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모든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투쟁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해나 선입견을 성찰적으로 점검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형성된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을 줄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의 현 상태와 전 세계적 역동성을 이해하게 되면 인류의 행복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 전 지구적인 생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작동시키게 된다.<sup>25)</sup>

이상과 같은 목적을 가진 다문화교육의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가 전제되어야 올바른 통찰력에 의한 합리적인 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 비판적 사고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는 다문화 교육과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주입되면서 세뇌식 교육이 이루어질 여지가 크다. 때문에 이와 같이 사고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들은 일단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게 의도적으로 ‘다르게 보기’를 유도하는 독해교육이 다문화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신념이나 가치관, 관점이나 세계관 등은 모두 역사·문화적인 영향의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가 습득한 것만을 무비판적으로 믿는다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암암리에 큰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그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옳다.’거나 ‘그것을 믿는 것이 나의 이기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옳다.’ 또는 ‘그것은 내가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옳다.’는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로 나아가기 쉽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에 깃든 자기중심주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가능한 한 이러한 경향

25) Christine I. Bennett, 앞의 책, 63-64면.

을 의식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생각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sup>26)</sup>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망적 사고 대신 비판적 사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때 비판적 사고란 우리의 이해를 명료하게 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의 생각 및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주의 깊게 검토함으로써 세상을 이치에 닿게 하려는 우리의 능동적이고, 목적적이며, 조직적인 노력이다.<sup>27)</sup> 이러한 비판적 사고에 따라 글을 읽는 것을 비판적 독서라 하는 것이다.

비판적 독서를 위해서는 우선 주어진 글을 제대로 파악하는, 내용 파악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용 파악 단계에서는 주어진 글을 있는 그대로 읽어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 독해 자료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분석적 사고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실적 독해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추론적 사고를 작동시켜 유추에 의한 바깥 읽기나 주어-목적어 바깥 읽기 등을 통해 추론적 독해를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드디어 비판적 독해가 가능한데,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을 역추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단순히 글쓴이의 생각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데서 그치는 글읽기를 소망적 독서라 한다면, 작가를 의식하고 글의 내용을 되새기면서 능동적으로 읽는 것을 비판적 독서라 한다.

비판적 사고는 주로 글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10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와 평가 기준을 들 수 있다. 먼저, 비판적 사고의 구성 요소는 ① 목적, ② 현안 문제, ③ 개념, ④ 가정, ⑤ 정보, ⑥ 추론을 통해 도달한 결론, ⑦ 관점, ⑧ 주장이 함축하는 귀결, ⑨ 맥락, ⑩ 대안 등이다. 비판적 사고를 구성하는 이상과 같은 요소들을 따져가며 글을 읽다 보면 글의 내용을 깊이 있고 폭넓게 파악하게 된다.

한편 비판적 평가 기준은, ① 분명함(clarity), ② 정확성(accuracy), ③ 명료성(precision), ④ 적절성(relevance), ⑤ 중요성(significance), ⑥ 깊이(depth), ⑦ 폭넓음(breadth), ⑧ 논리성(logicalness), ⑨ 공정성(fairness), ⑩ 충분성

26) 한상기, 『비판적 사고와 논리』, 서광사, 2007, 20~21면.

27) Chaffee, J.(1988), *Thinking Critically*, 2nd ed., Houghton Mifflin Co., 28면, 한상기, 앞의 책, 52면에서 재인용.

(sufficiendy)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10가지 구성 요소와 평가 기준을 적절히 결합시키면서 각 독서 자료의 주제를 평가하면 비판적 독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성 요소와 평가 기준들은 어떤 주제에 관련된 질문이 합당한지, 또 어떤 대안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비판적 독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제시한 바, 10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질문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 ①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 ②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현안은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③ 필자는 어떤 단락에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 의미가 충분히 설명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대안은 무엇인가?
- ④ 이 글에서 필자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알고 있는 가정은 그 내용이 정확한 것인가?
- ⑤ 이 글에서 제시된 정보는 정확한 것인가? 중요한가? 충분한가?
- ⑥ 필자의 주장은 스스로 제시한 근거와 논리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가?
- ⑦ 이 글에서 제시된 근거는 적절한가?
- ⑧ 필자의 주장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중요한가?
- ⑨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가? 이런 맥락에서 이런 글을 쓴 것은 시기적절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⑩ 당신이 이런 문제에 대한 글을 쓴다면 필자가 언급하지 않은 어떤 내용을 언급할 것인가?<sup>28)</sup>

이상의 물음에 대답 하면서 독해 교육을 한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애매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비판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비판적 독해를 통해 학생들은 특정 권력이 합법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행사된 실태를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으며, 특정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되는지에 대한 권력을 냉철하게 추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이처럼 비판적 독해는 다문화교육에서 요구하

28) 박은진·김희정, 『비판적 사고』, 아가넷, 2008, 43~63면.

는 사고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6. 다문화 지도사의 활용

다문화교육을 위한 독해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다문화 지도사와 외국인 출신의 다문화 지도사와의 팀티칭이 요구된다. 내국인 강사와 외국인 출신 강사는 각자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국인 강사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해 자국민들이 편견을 갖는 지점과 그 편견의 이유를 비교적 폭넓고 깊이 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에 있어 가장 크게 문제점이 되는 현안을 놓치지 않고 짚어낼 수 있다. 한편 외국인 출신 강사는 자신의 출신국과 이주국 사이의 이질적인 차이점을 체험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강점을 갖는다. 외국인 출신 강사는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용이하고 자신의 출신국 문화를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6.1. 다문화 전문 강사와 다문화 지도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다문화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은 다문화 지도사의 수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교육 과정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공존을 이룰 수 있는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다문화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다문화 강사들이 받는 다문화교육은 '상호문화교육'이라 불리는 네 단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계: 문화가 표현되는 사건 / 현상 발견하기

제2단계: 한국의 문화표현 양식과 의미 확인하기

제3단계: 다른 나라의 문화표현 양식과 의미 비교하기

제4단계: 다문화 협의안 문화규칙 만들어보기

이 과정은 교육 참가자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가 표현되는 사건이나 현상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 표현 양식과 의미를 확인 비교하여 다양성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조화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수업이다. 또한 모든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예술장르, 예를 들면, 미술, 공예,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다.<sup>29)</sup>

이렇게 훈련된 다문화 강사가 다문화 독서 지도사의 일을 병행하는 것은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교육 자료를 일상 문화 대신 읽을거리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독해교육 또한 다문화교육처럼 여러 분야의 예술장르와 결들이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 다문화 강사가 자신의 출신국 언어와 한국어가 모두 유창하다면 이들의 다문화 지도사의 역할 수행은 그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내국인 강사든 외국인 출신 강사든 다른 나라 문화의 아름다움을 열린 마음으로 느끼고, 학생들의 호기심을 부추켜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리나라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는 태도를 얼마나 성의 있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다. 다문화 독해교육도 다문화교육과 마찬가지로 ‘다름은 자연스럽고 유용하다.’는 강력한 신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30)</sup>

## 6.2. 유학생을 활용한 다문화 독해교육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대학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 일로에 있다.

###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1) 연도별 유학생 수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유학생 수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29) 노영은, “저의 직업은 ‘다문화 강사’입니다”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문화부 놀이터, 즐거운 문화, <http://culturenori.tistory.com>

30) 노영은, 앞의 글 참조.

※ 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하였음.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2012년에 이르러 10만 명에 육박하며, 출신 국가 수만 해도 약 200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고 장·단기간의 한국 체류 경험으로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그 이질감이 덜하다. 이러한 고학력 유학생들은 한국인 다문화 지도사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보조 교사 내지 특강 강사로 그 활용도가 높다. 더구나 유학생 중에는 자신의 출신국 언어와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을 다문화 강사나 다문화 지도사로 양성한다면 다문화 독해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7. 맺음말

민족이나 국가 개념은 쉽게 지워지기 어렵다. 그 속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삶의 태도 또한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문화 간의 차이를 희석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과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키고 그 다름을 용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용적 태도를 키우는 것이다.

최근에는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다문화도서관이 따로 세워지거나 기존의 도서관에 다문화 코너를 신설하는 등 다문화 독서교육을 위한 장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이에 뒤따라 다문화도서관 전문 도우미 양성을 위한 결혼이민자 독서대학도 활성화되고 있다.

다문화도서관의 도우미로 참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후배 이주민들에게 다문화도서관 활용법과 함께 동화 구연, 북아트 지도 등 자녀교육에 필요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독서교육을 통해 바로잡는 것은 물론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보수적인 한국인들에게 다문화 관

점으로 쓰여진 독해 자료를 권장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해 생각 할 계기를 주고 더 나아가 문화 간 소통을 지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다문화 인구 100만, 결혼 이민자 가족 20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도서관에 다문화를 지향하는 독해 자료들이 비치되지 않거나 다문화독해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한국 사회는 비정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어 독해교육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적 가치를 습득하게 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시행되어야 할 때다.

## 〈참고 문헌〉

### 1. 논저

- 교육부, “유아를 위한 세계 이해 및 다문화교육 활동자료”, 2007.
- 강진구, “다문화교육이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미친 영향 조사,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통권 제5호, 2008.
- 김대행,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거리”,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112집, 2003.
- 김성주, “범용 한국어 교재와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국제한국언어 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학』 제2권 2호, 2005.
- 김의영 외,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배영출판사, 2009.
- 김혜영, “다문화 문식성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분류—소설과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90집, 2012.
- 노은희, “다문화적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어 교사교육 연구”, 한국국어교육 학회, 『새국어교육』, 90집, 2012.
- 다문화교육방법연구회, 『교실 속 다문화교육』, 학이시습, 2010.
-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 박미선 역, 여이연, 2004.
- 박은진·김희정, 『비판적 사고』, 아카넷, 2008.
- 서종남,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10.
- 손호민, “미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 6집, 1999.
- 신순식 외,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1998.
- 아민 말루프, 『사람 잡는 정체성』, 박창호 역, 이론과실천, 2006.
- 엄한진, 『다문화사회론』, 소화, 2011.
- 이병규 외,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2005.
- 이소희, 『다문화사회,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보고서, 2012.
- 장미영,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지원정책방안 연구”, 국어문화회, 『국어문학』, 제44집, 2008.
- 장미영,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정체성 형성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학』, 제64집, 2008.

장미영 외, 『다문화가족 바로서기-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교육 프로그램 연구』, 글솟대, 2008.

장미영 외, 『다문화 콘서트-이해와 소통을 위한 현장 연구』, 신아출판사, 2009.

진시원, “한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15집, 2012.

한상기, 『비판적 사고와 논리』, 서광사, 2007.

허영식, 『다문화사회와 간문화성』, 강현출판사, 2010.

## 2. 번역서

Christine I. Bennett 저, 김옥순 외 역,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Christine E. Sleeter, Carl A. Grant 저, 문승호 외 역,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다문화교육의 탐구: 다섯 가지 방법들』, 6판, 아카데미프레스, 2009.

Khaled Hosseini, 저, 왕은철 역, 『A Thousand Splendid Suns 천 개의 찬란한 태양』, 현대문학, 2010.

Waris Dirie 저, 이다희 역, 『Desert Flower 사막의 꽃』, 섬앤섬, 2010.

## 3. 인터넷 자료

국제이주기구 홈페이지, <http://www.icom.int>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문화부 놀이터, 즐거운 문화, <http://cultureori.tistory.com>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ttp://britannica.co.kr>

언론기사통합검색사이트(Kinds), <http://www.kinds.or.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mogef.go.kr>

## 4. 신문 자료

<온바오뉴스>, 2008.3.25.

<전자신문>, 2007.11.7.

<주간조선>, 2008.5.12.

<경향신문>, 2013. 1. 20.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연동시켜 진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대학의 한국어교육 대상자들이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춰 글로벌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제 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은 가족, 민족, 국가 개념을 의식하는 소속의 논리에서 빠른 속도의 변화와 다양한 문화 접촉 기회의 확대 및 검증하는 복합성 개념에 의거한 도구의 논리를 수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 다양한 역사적 관점의 이해, 둘째, 문화적 의식 함양, 셋째, 간문화적 역량 개발, 넷째, 모든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투쟁하기, 다섯째, 지구의 현 상태와 전 세계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 증진, 여섯째, 사회적 행동 기술 개발 등이다. 이상 여섯 가지로 정리된 다문화교육과정의 목적들은 개별적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되어 있어 각각의 목적들이 서로의 발달과 함께 연동되어야만 성취가 가능하다.

한국어교육에 다문화교육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교과과정은 교육 목표, 교과내용, 교수방법, 교수매체의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 목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되,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어만을 습득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한국어를 통해 다문화를 고려하는 상황적 결정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사회참여기술을 익히며 정치적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국가별, 민족별로 따로 따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호 배타적 정체성을 지양하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내용면에서는 내용의 주제를 한국적 정황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과 함께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성, 언어, 사회적 계급, 종교, 성적 성향, 신체적 능력, 장애, 다양한 정치적 신념, 개념 등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교과내용은 무엇보다도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문화의 다양

성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의 존중, 세계사회에 대한 책임감, 지구환경에 대한 경외감 등을 가질 수 있는 인류보편적인 내용과 함께 문화권간에 서로 공유되는 문화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방법면에서는 일인교사제도를 지양하고 다문화적 학습자와 함께 하는 팀티칭, 멘토링, '제3의 교육공간'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교수매체 또한 현행 평면적인 도서 대신 입체적인 도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연계한다는 것은 특수한 문화권 출신의 학습자가 한국어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개별자로서의 한 인간이 어떤 문화권에서 삶을 영위하든 적응력을 높이고 나아가 선도적인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주제어 :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비판적 독해, 간문화적 역량, 다문화적 감수성

【Abstracts】

## A method of the linkage betwee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Jang, Mi-Young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ethod to support the teaching-learning operation through the linkage betwee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t universities. The multi-cultural education has a meaning of not only multi-cultural university students' adaptation to the society but also global citizen education for non-multi cultural university students and foreign students by providing multi-cultural sensitivity in a global era.

Current world of easy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requires trans-border global elites. Korean government also, in the name of global elite cultivation, supports overseas internship or student's international works as a global learning program.

Now, it's time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our society to receive 'the logic of complex' based on the speedy change, expansion of cultural contact chance instead of 'the logic of belonging' based on the concepts of family, race and nation. It means that new paradigm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needed in order to satisfy the various cultural changes in current days.

The concept of race or nation is not easily removable. Knowledge or living attitudes under this concept cannot easily disappear too. Therefore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not be the efforts to dilute the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but be the cultivation of generous attitudes which can understand, accept and adopt the differences.

Korean language reading education has to be started with sorting of 'first-read texts' and 'next-read texts', and further 'readable texts' and 'must-read texts'. It means that the reading education should be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and systematic materials requiring a bit of control instead of the liberal and voluntary ones.

The reason why classification of reading materials in good order is important is because liberal reading may cause bias and discrimination through experiences against the core value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finally lead to the potential antipathy against multi-culturalism.

Curriculum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need the aims as follows. First, understanding of various historic viewpoints, second, cultivation of cultural sense, third,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capability, fourth, fight against all kind of bias and discrimination, Fifth, promotion of understanding about earth's current status and global dynamics, sixth, development of social behavior technology. Above mentioned aims can be achieved not by individually but collectively as they are overlapped and linked together.

When people are in contact with foreign culture, it is necessary to make them know the existence of various historic viewpoints interpreting cultures. The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designed to develop the students' multi-cultural sensitivity such as new sense of value or attitudes.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Critical reading,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capability, Multi-cultural sensitivity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